

IBM-애플 · J&J · 메드트로닉, 의료 빅데이터 제휴

- IBM 이 의료 데이터의 수집, 분석, 활용 등과 관련하여 애플과 제휴를 발표
 - 양사는 이미 iOS 기기 기반의 기업용 앱 개발 및 단말기 판매 분야에서 제휴하고 있는 중으로, 이번 발표는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것
 - 애플은 의학·의료 연구용 아이폰 앱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‘리서치킷(ResearchKit)’을 발표했으며, 아이폰에는 애플워치 및 피트니스 기기, 건강관리 앱들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 시스템 ‘헬스킷(HealthKit)’이 있음
 - IBM 은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하여 분석한 의료 데이터를 의료·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“왓슨 헬스 클라우드(Watson Health Cloud)” 를 출시한다고 발표
 - IBM 의 왓슨 헬스 사업부 인원은 총 2,000 명이 될 것이며, 75 명의 의사도 포함
 - 양사의 새로운 제휴는 애플의 시스템에 “왓슨 헬스 클라우드”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수집 분석, 의사 및 연구자에 대한 제공까지를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
 - 양사는 기기 데이터나 환자 전자건강기록으로부터 임상시험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쓰일 수 있는 패턴분석 도구를 의사·연구진·보험회사 등에 판매할 방침이며, 기업의 직원 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수립 중
- IBM 은 신규 비즈니스인 “왓슨 헬스”를 위해 의약품·의료관련 제품 분야 대기업인 존슨앤존슨(Johnson&Johnson),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(Medtronic)과도 제휴
 - J&J 는 왓슨 헬스 클라우드와 왓슨을 활용하여 인공 무릎관절 치환 수술이나 척추 수술 환자의 수술 전·후 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반 코칭 시스템을 개발
 - 메드트로닉은 당뇨병 환자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인슐린 펌프 등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당뇨 치료 시스템에 관해 작업할 예정
- 또한 IBM 은 분석기술 강화를 위해 의료 데이터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익스플로리스(Explorys)에 이어 환자치료 급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텔(Phytel)도 인수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739-63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- 미국 환자 5,000 만 명의 의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익스플로리스는 이미 왓슨 헬스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, 피텔도 인수 절차 완료 후 왓슨 헬스에 포함될 예정
- IBM 과 양사의 구체적인 인수 협상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음

(IBM, 4. 13. & ZDNet, 4. 13.)